

엮음과 대칭의 美... 감탄 절로

‘한국 전통 매듭 - 균형과 질서의 미학’展
(국립중앙박물관 10월 10일까지)



만(만)자가 새겨진 호리병 모양의 주머니에 황색, 적색, 청색 계열의 동다회 끈으로 매듭을 맺고 끈을 길게 늘어뜨린 시연의식구 장식.

김희진 선생 작품 및 보유 유물 2백여점 전시 94개 매듭으로 장식된 시연의식구 첫 공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근무)은 10월 10일까지 기획전시실 I (세종로)에서 김희진(70·중요무형문화재 제 22호 매듭장 기능보유자) 씨의 ‘한국 전통 매듭-균형과 질서의 미학’ 특별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2004 서울세계박람회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이 대회의 주제인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성격에 맞게 특별 기획된 것. 이번 전시는 김희진 선생이 42년 동안 전통 매듭을 재현하고 그 현대적 아름다움을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과 직접 모은 유물 및 자료 200

점의 가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김씨의 창작품 ‘영원에서 영원으로’와 초대형 창작품 ‘시너지’는 3차원 공간에서 표현되는 매듭 자체의 입체적 예술성을 시도한 것으로 전통 매듭이 나아가 새로운 방향과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작품중 눈길을 끄는 것은 복숭아, 호리병, 여우 보주가 어울려 무려 94개나 매듭장식줄(수식)이 달린 불교 법회용 가마의 시연의식구 장식(보문사 소장). 이것은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그 풍요로운 색채 감각과 멋스러움에 보는 순간 저절로

입이 딱 벌어지게 된다.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이 소장했던 복주머니 매듭유품, 번갯발에 내걸린 범룡 모양의 유소(流蘇, 상여용 매듭), 교황이 방문 당시 입었다는 김씨의 전통매듭 달린 제의 등도 전시장의 기쁨을 더해준다. 임금 상여에 걸었다는 대형매듭장식(대봉유소)을 비롯해 궁중악기와 향낭 등의 각종 주머니, 안경집, 노래개, 부채, 등불, 심지어 절 법회의 번에까지 내걸린 다양한 매듭들은 조상들이 얼마나 폭넓

게 매듭의 미감을 탐구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전시장을 다 둘러보고 나면 휴대폰 끈장식 정도로 매듭을 생각하는 요즘 우리네 미감의 부박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1963년 정연수씨에게서 매듭을 본격적으로 배웠다 김희진씨는 ‘누에가 생명을 바쳐 뽑아낸 명주실을 가장 좋아합니다. 명주 끈을 반으로 접어 두 가닥을 만들고 그것을 질서 있게 엮은 다음 양 손의 균형을 맞춰 한 끝에 조여야 좌우대칭은 물론

앞 뒤가 똑같은 매듭이 나오지요. 우리 전통 매듭을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라고 지칭하는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매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의장과 권위’, ‘음악이 흐르는 풍경’, ‘영원과 종교’, ‘생활의 품격’, ‘선비의 멋과 풍류’, ‘여인의 꿈’, ‘매듭장 김희진의 예술’ 등 총 7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02)398-5000 글=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구전 이론화, 복원·창작으로 한평생

▲김희진 선생은? 삼국시대에서부터 손끝에서 손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통 매듭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시켰다. 국화매듭·잡자리매듭·거북매듭·석시매듭 등 38가지 우리 고유의 전통 매듭 문양을 복원해 냈고, 끈을 짜는 기법도 네가닥, 여덟가닥으로 하는 4사·8사의 범위를 뛰어넘어 12사·24

사·36사까지 개발, 다양한 집단의 매듭을 창출해 냈다. 끈 짜기를 뜻하는 ‘다회(多廻)’와 상여용 매듭을 일컫는 ‘유소(流蘇)’는 그가 약학계법에서 발견해 정착시킨 매듭 용어들. 1976년 무형문화재가 된 뒤 ‘한국매듭연구회’를 조직한 그는 매듭을 한발 노리개로만 여기는 편견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장엄·인간의 염원·소망 담아 표현

▲불교매듭의 의미는?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화려한 조형물로 형상화한 불교미술

품에는 한결같이 인간의 간절한 염원과 소망이 담겨 있다. 부처님과 보살의 공덕을 장엄하고 불교

에 귀의하도록 인도하는 것발의 유소, 영기를 모실 가마를 장식한 연수식 등의 불교 의식구와 복장 유물에 장식된 매듭은 미적 감각이 충만된 장엄 요소이다.

▲불교매듭에 어떤 것이 있나?



불자매듭.

△불자(佛子)=원래 인도에서부터 먼지나 모기, 파리 등을 쫓는데 사용했던 생활용구였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마음에 쌓인 더럽고 나쁜 것을 털어내고 깨달음의 길로 더욱 정진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 먼지를 털어내는 총재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흰색 말총이나 삼 등을 보기 좋게 잘 다듬은 후, 오죽(烏竹)이나 막대기 끝에 풍성하게 달고 유소로 장식했다.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산대사 초상’에서 잘 볼 수 있다.



복장 주머니.

△복장 주머니=복장 유물중에는 불상안에 붙안했던 것 이외에 탕화나 깃발(번) 앞에 달았던 복장 주머니에 잘 나타나 있다. 가족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내용의 발원문을 자수로 수놓았으며, 주홍색끈으로 석시 매듭을 맺은 점이 이채롭다. 연화등 모양의 연꽃에 자리한 스님이 합장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연수식.

△연(蓮) 수식=가마나 영기를 운반하는 수레 장식에 쓰였다. 자수 장식의 형태들은 주로 무령장수와 부처님께 공양해 높은 공덕을 쌓고자 했던 조선 여인들의 간

절한 마음이 들어 있다. 만(만)자를 새겨넣은 호리병 모양의 주머니에 황색, 적색, 청색, 녹색, 백색 계열의 동다회 끈으로 매듭을 맺고 끈을 길게 드리웠다. △번(幡)=부처님과 보살의 공덕을 장엄하고 공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발인 번은 불교 교단의 표장(標章)이었으나, 후에 법회나 설법 때 불전 기둥이나 당간에 매달아 거는 장엄구로 사용됐다. 대표적인 것이 49재때 주로 사용되는 ‘인로왕변(아래 사진)’이 있는데 법륜 모양으로 맺은 매듭과 장구 매듭 등이 사용됐다.



▲방생(放生) - 방생이란 죽음을 직면한 산 것을 살려주는 것을 말한다. 방생이란 (畜生)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미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하여 괴로움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이 물고기를 강에 놓아주는 의미로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참다운 방생은 이타(利他)의 방생입니다.

심가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 하옵시다.
평생한 가을이 왔습니다. 포교 일선에서 종생제도에 헌신에 힘을 기울이시는 주지스님께 엎드려 삼배 올립니다.
금일 제기 정월방생법회에 황금잉어를 소개코자 편을 들었습니다.
잉어는 공룡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류중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황금색은 왕을 상징 하기도 합니다.
오른 행실도, 신이당, 등용문, 한국민화 등등 많은 곳에서 잉어를 길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잉어에 관한 몇가지만 소개 올립니다.

오른행실도
용왕의 아들인 잉어를 구해주고 보은을 받았다는 신이담(神異譚)이 전해오고 있다. 일부 문중에서는 잉어를 먹지 않는다. 파평 윤씨는 꿈에서 잉어를 살려주고 축복과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 하였으며, 평산 신씨는 잉어의 배속에서 신립(申祿) 장군의 금(金)동곳을 발견하고 조상의 상을 먹은 고기라 하여 꺼리다고 한다. 잉어 꿈은 수태를 알리는 길몽이라 하였다. 잉어를 용종(龍種)으로 보고 임신출세를 상징한다. 잉어가 황하 상류의 퉁먼(桐門)의 거센 물결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중국의 등룡문(登龍門) 고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

용 문
중국 황하의 최상류에 있는 협곡을 말하며 그 지방에서는 하진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이 용문의 협곡은 물흐름이 거센 높은 폭포로 되어있었다는 것이다. 이 폭포 밑에 있는 강에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 가고 싶어 하는 많은 잉어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나 웬만한 잉어는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올라 가기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연습을 거듭하고 용기와 슬기를 터득한 잉어는 기어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며 등룡한 잉어는 용으로 화신하여 등장한다는 전설에서 기어이 용문 또는 등용문이라 불리워졌으며 중국의 과거(관리 등용 시험)를 등용문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잉어에 관한 중국 사상이 잉어와 함께 일본에 전해되어 일본에서는 남자 아이를 나면 5월 단오절에 '고이노리보리'라는 창호지나 천으로 만든 커다란 잉어 기구를 지붕 위에 띄어 놓고 이들의 출세를 기원하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다. 동양의 중국에서는 공자가 잉어를 지혜와 슬기의 상징으로 중히 여겼고, 실제 중국에서는 옛부터 잉어를 용문 잉어라 하여 과거이나 출세어로 여겼다는 고사가 있다.

끝까지 봐주시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성불 하시어 인류에 스승이 되시길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크기는 15cm 이상
● 10일전까지 전화예약
● 수량 100마리 이상
● 콜센터응답은 별도부담
황금잉어 유통 충남 천안시 원성동 450-8번지
TEL: (041)622-4985 / H·P: 018-690-4985